# G8 정상회의서 한·미 정상회담

## 내달 8~9일 日서…李대통령, 한·러 정상회담도

이명박 대통령은 내달 8,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5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G8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고 이동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G8 확대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인류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문제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를 저(低)탄소사회 및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아 녹색성장의 전기로 마련한다는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기조를 소개하는 동시에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9일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일 우리나라와 같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

또 확대정상회담이 끝난 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러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다.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에너지 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방안,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미래 비전으로 구체화하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은 기후 변화 등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친환경 경제성장 동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4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부시 내달 방한 무산 8월 방문 계속 추진

한국과 미국은 다음달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오는 8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고별 한국방문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일본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당국 간에 협의 중"이라면서, 도야코 회동과는 별도로 부시 대통령의 8월 한국 방문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은 그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G8 정상회의에만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에서 G8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3일(현지 시각)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플라잉 스타 카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오바마 49% 美대선 후보 지지도 매케인 3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힘입어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보다 12%포인트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신문이 블룸버그통신과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미 전국의 등록유권자 1천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후보 지지율에서 오바마 의원은 49%의 지지를 얻은 반면 매케인은 12%포인트 뒤진 37%를 얻는데 그쳤다.

친 민주 성향의 랠프 네이더와 자유당 후보로 거론되는 봅 바 전 연방 하원의원이 나서는 4자 대결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오바마(48%)와 매케인(33%)의 격차는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연합뉴스

# "보수대연합으론 난국 타개 못해" 한목소리

### 한나라 당권 주자들 첫 TV 토론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7명의 당권 주자들이 25일 오후 첫 TV 토론회를 갖고 당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진 영, 박희태, 공성진, 허태열, 박순자, 김성조, 정몽준(기호순) 등 7명의 후보는 전날인 24일 후보등록을 마친데 이어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MBC TV토론에 출연했다.

◇**내각 개편**=정몽준 후보는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했으며, 진 영 후보와 허태열 후보, 김성조 후보는 일제히 대폭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후보는 "'여야'라는 한계에 갇히지 말고 넓게 인재를 두루 등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지금은 거의 거국내각을 구성할 정도의 개각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성조 후보는 "인사폭은 대폭 커져야 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후보는 "이 정권이 위기상황에 몰린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으로, 정치력 있는 국회의원을 많이 입각시켜야 한다"고 '정치인 입각론'을 거듭 주장했다.

◇**당내 갈등**=대부분의 주자들은 당청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 사유화' 논쟁 자체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불분명한 관계설정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 후보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청와대를 견인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따라서 당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당청간) 서로 간섭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며 할 말은 하는 '상식적 당청관계'를 강조했다.

허 후보는 "현재 당청 분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는 상황으로,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공 후보는 "당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주도세력이 돼야 한다"며 각각 밝혔다.

◇**보수대연합**=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회동하면서 불거진 '보수대연합론'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었다.

정 의원은 "국민 대연합을 해야 할 때인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지 않고 언론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고, 박희태 전 부의장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하다"며 "보수세력을 합쳐 비보수세력과 대결한다는 건 대결의 정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北 오늘 핵신고서 제출…내일 냉각탑 폭파

북한이 26일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내일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인 의회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서는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직접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북핵 '10·3합의'에 따라 신고서를 작년 말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북·미 간 이견 등으로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6자회담은 2단계(핵신고 및 불능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3단계(핵폐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9개월 동안 안 열려온 회담의 일정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플루토늄 양을 북한이 처음으로 신고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검증을 거쳐야 완전한 핵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증과 핵폐기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핵폐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행사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27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